

아이비리그 연간 등록금 9만 달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표적인 사립 대학인 아이비리그의 연간 학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9만 달러를 돌파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영국 더 타임스는 이날 미 북동부 8개 사립대학인 아이비리그의 2024~2025학기 등록금은 전년 대비 3.6~4.5% 증가했다. 이에 8개 대학 중 5개 대학의 등록금이 9만달러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 중위소득(7만4천580 달러)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더타임스는 설명했다.

펜실베이니아대 연간 등록금이 9만 2288달러로 가장 높았다. 이는 학비, 기숙사비, 학용품비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브라운대, 다트머스대, 코넬대도 각각 9만1676달러, 9만1312달러, 9만 1150달러로 큰 차이가 없었다. 예일대는 9만975달러다.

컬럼비아대(8만9587달러)와 프린스턴대(8만6700달러)는 그나마 8만달러 수준이었고, 하버드대가 8만2866달러로 가장 저렴했다.

연간 학비가 9만달러 수준이라면 4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기 위해서는 약 36만달러가 필요하다. 어렵사리 입학했다하더라도 졸업을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다.

미국의 연간 가구 중위소득은 7만 4580달러 수준인데, 이들 대학 학비는 이를 훨씬 상회한다. 더 타임스는 대학 학비가 미국 중위소득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버드나 프린스턴 등은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중산층에는 등록금 자

체가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아이비리그 입학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올해 예일대, 다트머스대, 펜실베이니아대 입학 지원자 숫자는 오히려 9% 가량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하버드대의 경우 입학 지원자가 5%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학내 반(反)유대주의에 대한 모호한 입장으로 비판받던 클로딘 게이 하버드대 총장이 물러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3000만 명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이자 미납으로 대출금이 불어난 경우, 불어난 이자를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할 계획이다. 연 소득 12만 달러 이하, 부부는 연 소득 24만 달러인 경우 액수 제한 없이 이자가 탕감된다.

대학 학사 과정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고 20년간 상환한 경우, 대학원 과정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고 25년간 상환한 경우엔 남은 대출금 전액이 탕감된다. 또 파산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경우도 전액 탕감 대상이 된다. 기존 대출금 탕감 프로그램을 몰랐거나 절차가 어려워 지원하지 못한 경우, 자동적으로 이번 정책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된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번 정책으로 3000만 명의 대출자들이 탕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 가을부터 일부 대출 건에 대해 탕감 절차를 밟을 계획이며, 이르면 내년 6월 관련 법이 정식 입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4년 가을학기 주요 대학 조기 전형 트렌드

대학 입시에서 드립스쿨 합격률을 높이고 싶은 학생 중 상당수는 조기 전형 방식으로 대학에 지원한다.

대입 컨설팅 전문기관 'Admission masters' (theadmissionmasters.com)의 Richard Vincent Kim 컨설턴트에 따르면 듀크대 같은 경우 얼리 디시전(ED)의 합격률이 12.5%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기 전형으로 지원해도 사실상 여전히 합격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정시 지원(RD)은 합격률이 더 낮기 때문이다.

올 가을학기 입시에서 나타난 조기 전형 트렌드를 살펴보자.

첫째, 지원자 수 증가이다.

해마다 대학 지원자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이후 커먼앱으로 접수한 대입원서는 무려 65%나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많은 대학들의 조기 전형 합격률이 과거보다 낮아졌다. 예일대는 조기 전형의 합격률이 9.02%까지 떨어져 20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원서 양이 늘어난 것은 입시 경쟁이 치열한 대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조기 전형의 한 방식인 얼리 액션(EA) 원서의 경우 플로리다 주립대는 28%, 조지아대는 3.5%씩 각각 증가했다. 또한 테네시대는 4만 9248개의 조기 전형 원서가 접수됐는데 이것은 2022~23년 입시 사이클보다 1만 774개나 늘어난 수치다.

둘째, 테스트 옵셔널이 학생들 사이에 여전히 인기가 많다는 점이다.

MIT, 조지타운대, 예일대, 다트머스대, 브라운대 등 5개 명문 사립대는 정책을 변경해 다시 지원자들에게 표준시험 점수를 요구하기로 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테스트 옵셔널을 좋아한다. 커먼앱을 통해 원서를 낸 지원자 중 50% 이상이 올 가을학기 입시에서 표준시험 점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20% 늘어난 수치다. 보스턴대(BU)의 경

우 ED 1과 ED 2 지원자 중 42%만 시험 점수를 제출했다. 예모리대, 프린스턴대, 유켄, 하버드대, 칼튼 칼리지는 최소한 2026년 가을학기 입시까지 테스트 옵셔널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직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유지하는 대학수가 절대적으로 많다.

셋째, 원서의 다양성이 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트렌드로 지원자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 2019~2020년 이후 자신을 '불충분하게 대표되는 소수그룹'(URM)이라고 정의하는 지원자의 숫자는 무려 67%나 늘었다. 직계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을 일컫는 '퍼스트 제너레이션'(FG) 역시 같은 비율로 증가했다. 비록 URM 지원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이 그룹에 속하는 지원자수는 2019~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아메리칸인디언과 흑인 지원자 비율은 각각 86%, 70%나 급증해 가장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후 일부 대학들은 추가 에세이의 주제를 업데이트 했다. 올해 노스웨스턴대의 에세이 주제는 다음과 같다.

우리 대학이 당신의 개인적 경험의 맥락 안에서 원서를 고려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싶다.

당신의 배경, 정체성, 고등학교, 커뮤니티, 가정환경의 어떤 면을 통해 당신의 자아와 인생이 가장 많이 형성되어 왔는가?

이 자아는 노스웨스턴 커뮤니티에 학업과 과외활동 면에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관여할 것으로 보는가?

이런 주제의 에세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독특한 배경과 경험을 강조할 기회를 얻게 되고, 대학은 다양한 신입생 구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Sandy Kim 라인댄스 초급반 오픈

NOW OPEN

제일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샌디 김의 라인댄스 초급반이
드디어 오픈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춤!

- 스트레칭 해소
- 정신 건강 증진
- 만성질환 예방
- 치매 예방 효과



<초급반>
월·목요일: 오전 9시~10시 15분
<중·고급반>
월·목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등록비>
일주일에 두 번 참여시 월 \$80
한 번 참여시 월 \$45
* 한국어로 수업 진행 *

T.562.279.4200

305 E.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